

## “마케팅, 경영의 묘(妙) 살리면 성공한다”

바이오 벤처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금년의 바이오 산업 전망과 미래의 계획에 관하여 간단한 소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로 있지만 바이오 벤처 부분도 금년에도 많은 난관을 극복해 가야 하고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 벤처 기업경영에서 무엇보다도 금년이 쉽지 않을 것 같은 것은 전반적인 경기 전망의 불투명으로 인한 자금시장의 경색성과 기업활동의 정체성에서 연유한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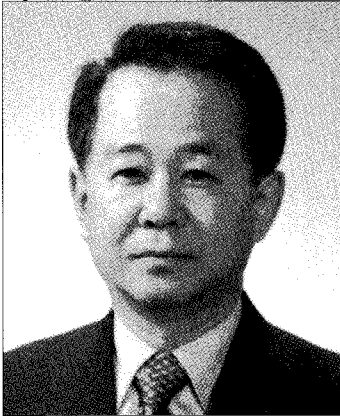
3월 현재 증등의 사태는 예측을 불허하고 있고 만약에 많은 논자들이 예상하는 대로 전쟁이 나고 이것이 조기에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경우 경기는 더욱 침체될 것이 우려된다. 2003년 경기에 관한 많은 기사들의 대부분이 2002년 말이나 2003년 상반기에 경기가 활성화 되리라고 예측하였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금년에도 금융권, 거대 제약기업 그리고 투자자로부터의 자금유입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그러나 한가지 매우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도 그렇고 민간대기업도 그렇고 바이오 사업에 관하여 매우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전경련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의 바이오 산업의 R&D 환경에 있어서 인력, 기초과학, 인프라, 산학연, 정부지원 등이 일본과 비교해 상당히 열세로 나타났으나 기업 CEO의 관심도는 일본과 대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들의 2003년 투자계획도 상대적으로 볼 때는 바이오 산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절대적인 투자 액수에 있어서는 소극적이라 하겠다. 또한 국가산업발전전략 기획단에서 발표한 2010년 산업비전과 발전전략 보고서에 의하면 IT 산업 다음으로 BT 산업을 대표적인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2002년에 바이오기업 평균매출이 약 50억원으로 예상돼 전년에 비해 100%의 증가를 보였다. 이는 바이오 산업이 초기성장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목표를 삼고있는 신약개발, chip 개발, 유전자 치료제 개발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그 목표가 달성되기까지는 원천기술 개발을 통하여 이를 활용하여 산업화가 가능한 관련분야(제약, 식품, 농업, 환경 등)를 통한 활발한 사업전개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의 바이오 산업이 대부분 연구자 중심으로 창업이 되었고 많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진행되고 있어서 기술적인 면에서 큰 이점으로 어느정도 프로젝트가 성공단계에 이르렀으나 마케팅과 재무, 경영 측면에서 부족하여 사업화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 취약점이 해결되면 우리 바이오 산업은 앞으로 크게 국가경제에 공헌하리라고 본다.



박 종 세 사장

램프런티어

**약 력**

- 서울대학교 물리대 화학과 / 학사
- The Johns Hopkins Univ.(Baltimore, MD, U.S.A.) 화학(생화학) 박사
- Smithkline Bio-Science Lab.(미국,매사추세츠주) 독성부 Chief(부장)
- 미국 Maryland 주정부 독성과 책임관
- The Univ. of Maryland(미국,메리랜드주) 의과대학 조교수
-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